



박 경 레  
(경북 경산군 보건소)

저는 경북 경산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가족 계획지도원 박경레입니다.

이같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겪은 몇가지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나 일면 송구스러운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가족계획 사업에 몸을 담은 지 어언 16년에 이르렀습니다. 등산가가 험난한 산과 계곡을 정복했지만 한탄도 정상을 정복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듯이 가족계획 사업이란 마치 바위를 굴리고 또 굴려도 목표까지 옮기기가 힘든 것처럼 어렵고 고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슬터건이 방방곡곡에 배아리키기 시작했던 1962년 무렵 저는 오늘의 농촌에서 이 사업이 가장 절실함을 확신하고 가족계획 지도원으로 자원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겪은 많은 어려움과 슬한 좌절감을 통해 얻은 경험철학이 가르쳐 준 것은 사업의 대상인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환경속에서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 공동이익을 위해 때로는 군수, 경찰서장, 면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해야 할 일을 대신 마다 않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소비절약 운동, 가정의례 준칙 등의 실천에 있어서도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몇가지만을 골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의 농촌에는 조직적인 보건 사업이나 간호사업은 거의 백지 상태였습니다. 병이 나서 도시의 병원을 찾아가는 몇몇 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즉 건강의 개념이나 예방



등에 무지하여 예방이란 오직 몇가지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으며, 그나마 강제성을 면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또 치료면에서 보면 도시의 병원문턱은 이들에게 너무 높아서 병이 생기면 걱정이 앞설 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 처음으로 생긴 보건소에는 간호원이라고는 진료실에 1명, 가족계획에 1명 뿐인데 이들은 조

직적인 병원 환경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원과는 그 역할이나 인식이 아주 달랐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즉 건강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 사업이란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혼자서 개인이나 가족을 계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적 배경, 교통 문제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농촌의 교통은 불편하여 년간의 왕래는 보행으로나 자전거로 하였고 1일 1회의 버스왕래가 있었으나 다만 저에게는 자전거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 가족계획 제동을 위하여 대상자를 모으는 일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농촌은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함께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방에, 여자들은 안방에 따로 모이게 하고 가족계획의 필요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반응을 살폈더니 처음에는 이상한 듯, 듣는 것도 거부해 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는 하나 실천에 옮기기에는 많은 저해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모임을 여러번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울고 웃고 호흡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동작의 되풀이란 어려웠고 또한 농촌실정을 모르는 저에게는 고쳐야 하고 참아야 하는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처음 찾아간 대평동 모찌집에서는 마루 위에는 닭들이 마구 뛰어다니고 여기 저기 똥을 갈겨 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때 안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제가 서 있는데도 쓸어대는 실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찾아간 목적을 얘기하고 소개를 한 뒤, “아주머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농촌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마루에 닭똥이 있는데 아침밥은 어떻게 잡수시며 사람이 앞에 있는데 빗자루를 그렇게 흔들어대면 실례가 된다는 것쯤은 상식적인 교양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을 전하는 순간 부인의 안색이 금방 달라지면서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농촌실정에 손이 모자라서 애먹고, 나도 지금 들에 고추따러 가야 하오” 하면서 뉘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차, 실패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아찔했습니다. 불손한 내 언동에 몹시 자음이 거슬렸고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역시 농촌사람을 대하고 가정 실정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없이, 저는 하루 종일 다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우선 바지에다 모자를 쓰고 자전

거용 흰 장갑에다 운동화를 신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농촌에서는 보리짚을 연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느 동리에 갔을 때 젊은 엄마가 애기를 등에 업고 맘을 뽀뽀 흘리면서 중참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 업은 애기는 피어 오르는 열기가 싫다고 울어대고 엄마는 불을 때며 감자를 썰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앞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하도 딱해서 제 소개를 할 겨를도 없이 “아주머니, 애기베리고 수고합니다. 제가 좀 거들죠” 하면서 부지깥이로 보리짚을 밀

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쩔지 불길은 점점 꺼지고 연기만 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스러워 엉거주춤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어디서 사셨는지는 모르나 보리짚을 한번도 때 보지 않은 모양이지요?” 하면서 부지깥이로 앞에서 탄 재를 툭툭 놀려가며 보리짚 안쪽으로 살살 헤쳐주니 불길은 다시 일기 시작하더군요. 과연 해보지 않은 일은 어렵구나 하며 지혜와 실정에 맞는 요령의 필요함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점심준비도 끝내고 애기 짚을 먹일 때 비로소 제가 찾아온 용건과 소개를 하니 아주머니는 아주 반가워 하면서 “조용한 날 다시 오라.”고 하며 들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친한 사이가 되어 몇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결과 그녀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가족계획 실천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즉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선뜻 물기에 그 당시는 콘돔을 권장하는 시기라 콘돔쓰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서너달 사용 후 남편 쪽에 약간의 성적장애가 있다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왔습니다. 그 때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기노식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남편의 비협조로 임신이 되어 여러번 보건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리 약축을 해 두지 않고 저는 늘 가정방문을 다녀왔으므로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학생 편에 방문신청을 받았습니다. 찾아가 보니 두달째 월경이 없고 혈기증이 나는것을 보니 임신이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인공유산이 어려운 때였으므로 낳기를 권했으나 가족이 더 이상 애기를 원치 않는다고 극구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할 수 없이 유산을 시키려던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느새 남편과 부인은 도장을 가지고 함께 보건소에 왔습니다. 외과에 의뢰하여 수술을 받은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 후 놀라웠던 것은 남편이 자진하여 콘돔을 다시 사용한

**당신은 빨갱인교, 촌에 사는 우리들에게 냉수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니.....**

점입니다. 그 때 저는 얼마나 흐뭇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1964년 루프의 도입과 더불어 그녀는 최초의 삽입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마을의 가족계획 사업이나 루프권장은 이 아주머니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확대되어 자발적인 마을이 되었으므로 '저의 힘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었지요.

아주머니는 더 한층 열성적으로 가족계획 실천에 참여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은 아주머니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아주머니는 그 당시에 조직된 가족계획 학습반장이 되어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학습반은 68년에 가족계획 어머니회로, 1970년에는 어머니회로, 그리고 1976년부터는 새마을 부녀회로 전면 개편되어 모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농촌에 있어서 보건 간호원들이 불합리한 생활양상을 한가지씩 고쳐가려던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청결부터 계몽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마루가 더러우면 걸레를 빨아서 깨끗이 닦아 주고 사용한 걸레는 다시

빨아 줄에 걸어 일광소독을 시켜주는 등 말보다 제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줄 때 보건교육이 나도 모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애기 엄마와 이야기가 있어 들어갔더니 마침 점심때가 되어 손으로 숟가락 들기를 담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할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여러번 사양을 하니까 민망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때문에 그 후부터 그런 경우에 물을 얻어 조금 마시고 그걸로 수저를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은 살짝 버리고 다른 물을 마셨더니 그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식사중 다정한 대화가 교

환되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수질검사기를 지참하여 방문하고 우물의 수질을 즉석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크로로칼키가 0.2PPm이 되도록 투약기준에 의하여 투입시켰습니다. 어느 집 노인은 "냄새가 지독하여 냉수도 못 마시겠고, 당신은 빨갱인교, 촌에 사는 우리들에게 냉수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니... 이날까지 병 없이 잘 살았으니 아무 걱정말고 쓸데없는 것 마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원망의 눈초리와 책망도 이해와 설득, 계몽과 교육으로 차차 해소되어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러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당구석 물이 고여 모기와 지렁이가 우글거리고 냄새도 정말 고약했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까지 소독약을 뿌려 악취를 없애고 병균이 제거되도록 힘썼습니다.

이렇게 보건사업은 말보다 제가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더 깊은 인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마을에 찾아가면 자발적으로 자기집에서 서로 상담하기

를 원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대하던 주민들의 눈초리는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도 온화한 인정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부녀자들은 곧 친숙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저의 사업이 비치는 서광과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우선 주민들의 건강 유지사업부터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자면 먼저 손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즉 물을 끓여 마시도록 하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마는 일광소독하도록 했습니다. 행주를 최소한 3개를 사용케 하여 1주일에 3회 끓이도록 하는 등 환경 위생에 관한 시범지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려움도 귀찮은 일도 피로움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변해가는 주민들의 행동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던 간단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런 계몽과 시범은 대부분 야간 좌담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렇게 부딪혔던 농촌습성과 생활양식의 이해부족이 많이 해소됨으로 인해 차차 주민들과 가족계획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10개 읍면을 혼자 순회지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기에 너무 힘에 겨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코피가 나서 나무 그늘에서 몇 시간씩 쉬어야 했고 어떤 때는 너무 피로한 머리를 쫓는다는게 그만 잠이 들어 버려 그 날은 몇집밖에 가정방문을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녁 늦게야 방문에서 돌아오면 사업에 따른 기록과 보고를 하였으며 그렇게 되니 잠은 3~4시간 밖에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저의 소원은 한번 잠을 싣껏 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리던 비는 개이고 맑은 날씨에 군 소재지에서 12km 떨어진 78가구에 인구 300명이 사는 마을 중간쯤 한 초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창백한 얼굴을 가진 부인이 마루끝에 앉아 있기에 빈혈인 듯 싶어 그 원인을 물으니 출산한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세히 알아본즉 남편은 3년전에 전축사업을 하다가 두 다리가 절단된 불구의 몸이고 게다가 연년생으로 5남매나 된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같은 여성으로서 불쌍하고 착잡한 마음이 되어

마냥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뭉클하게 솟았습니다. 아무리 직명이 인구조절정책에 앞장선 가족계획지도원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그들에게는 가족계획 운운보다 생활의 문제가 선전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중에 잠바 주머니를 뒤져더니 비상금 700원이 나왔습니다. 전 그것으로 쌀 3되와 미역 한오리를 사서 죽밥을 만들어 산모를 도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철 모르게 어머니가 먹기 전에 서로 먹겠다고 싸웠습니다. 그 광경에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저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역시 있을 겁니다. 그 분의 얼굴이 창백한 것은 사실 먹지 못하고 육체적 피로와 아이들의 끼니에 대한 걱정 등으로 빈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생아를 살펴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흰 수건에 쌓인 채 목욕을 시키지 않아 태지와 난락 찌꺼기가 머리와 이마에 그대로 말라 붙었고 더러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른 물을 데

위 목욕을 시키고 보니 아주 예쁜 아기였습니다. 할 일을 끝내고 막 그 집을 나오려고 할 때 불구가 된 주인이 방문을 열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을지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차” 했습니다.

부인에게만 신경쓰느라 건넌 방문을 열어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저의 소개와 찾아온 목적을 자세히 말한 즉 무엇인지 알았다는 뜻인 모양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하는 말은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이 곳 면사무소에 있는 여직원의 딸이 애들이 많으면 한평생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관수술에 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선생님의 감사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오신 길에 수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순간 나는 잠시 망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네를 위해서 권장하는 데 은혜에 보답이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적으로 수술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타인에 의한 수술로 훗날 원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칠새라 싶어 다시 접근하여 뜻을 타진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양쪽다리가 없는 그를 자전거에 태워 시술 지정의원으로 안내하여 수술을 위탁했습니다. 30분간의 수술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지요. 정관을 당길 때마다 고함치는 소리가 나의 가슴을 마구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몸이라서 웬일인지 걱정이 되더군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1주 후에 수고스럽지만 왕진하여 발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자전거에 태워 집에 가는 도중 “야아! 황소고집이 여자뒀에 매달려 간다”라고 외치는 아이들과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동네 사람이 무엇인가 수근거리면서 따라왔습니다.

저는 처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알고보니 그분은 동네에서 면장이나 지서장의 딸도 들지 않는 황소 고집불통이란 별명의 주인공이었

습니다. 신체적 결합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오는 후유증이나 노이로제가 걱정되어 여러번 당부를 하니까 오히려 “잘 알았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황소고집이지만 부드럽게 변모한 그분을 한바탕 웃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간 애기 아버지와 산모를 위한 일을 모색하기 위하여 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니 극빈자용 양곡을 한말 주기에 자전거에 싣고 열심히 신나게 제말을 밟았습니다. 다시 찾아가 보니 한창 이웃들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자전거에 실려간 양곡을 보더니 매우 반가워하고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저도 모르게 흐뭇한 마음으로 몇 곡이나 훔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느끼는 보람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주 큰 사회사업을 해도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기록 및 정리를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올때는 이미 땅거미가 깔렸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으니 하루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창백한 얼굴에 현기증을 이기지 못 하여 피로워 하던 그 부인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 잠을 좀처럼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가서야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이 궁금하였지만 다른 일이 많아 일주일 후에야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과는 상상외로 좋더군요. “아침에 선생님이 일부러 오셔서 실을 빼주고 가셨습니다. 모두가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며 진심으로 좋아하더군요. 그 웃는 얼굴에는 영양실조로 마른 피부에 잔주름이 잡혀 가없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뭇해 하는 걸 보니 저의 마음은 더욱 더 봉사하며 일해야겠다는 정열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후 2주일이 지났을까요. 연락이 와서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니 그 불구인의 집 옆에 사는 사대독자가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대독자라 해도 자기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본인 데 황소고집이 권하고 자기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늘 안내하여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신바람이 나서 그 마을 부녀자들을 찾아 가족계획 상담을 했습니다. 정관수술을 끝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추후방문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 얼마전 수술한 사대독자가 어찌되었을까 궁금하여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쪽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루에 피시술자와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래로는 반가움에 “몸이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 “별 이상없다.”

###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목덜미로부터 따듯이 흘러내리는 새빨간 선혈……

는 아들의 딸이 떨어지기도 전에 할머니의 담뱃대가 저의 뒷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목덜미로부터 따듯이 흐르는 느낌에 손을 대보니 앓! 새빨간 선혈이 흐르는게 아니겠습니까. 경열적인 저였지만 피를 보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우선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갔지요. 문자 그대로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상처부위를 가위질 하는 의사의 당황해 하는 모습이 벽에 걸린 거울로 반사될 때 형용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바늘을 봉합하고 머리는 봉대로 칭칭 감겨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핏자욱이 얼룩진 새파래진 얼굴색은 더 없이 처량하게만 보였습니다. 왈칵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사 20년 생활에 많은 큰 상처를 봐도 당황하지 않았는데 네 바늘 깨매면서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하면서 “이것은 다 같이 지역사회에서 공동목적을 가진 의료인이 불운을 당했다는 점에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하던 말에 서늘프고 외롭던 마음이 어느새 녹아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얻어맞은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저와는 달리 할머니, 며느리 할 것 없이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용서해 주소. 이 늙은 것이 잘못했

오”라는 말을 거듭하면서 잡았던 손을 놓을 생각도 없더군요. 이유인 즉 며칠 전부터 아들 내외가 토닥거리기에 주의깊게 들어보니 며느리가 “누가 가라했나. 당신 밧대로 저질러 놓고 이제는 혼자 살아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을 들으니 너무 걱정이 되어 화가 난 나머지 나에게 대한 격분이 끝내 이런 결과로 돌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야 저는 사전에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저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저의 사명감을 다하리라 마음먹고 정관수술 후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니 그제야 수감

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랴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자신은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오히려 이해시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가족계획 실천이라기 보다 산아제한이라는 단순한 인식과 무지한 행동의 결과였지만 지금도 상처부위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눈물겨운 추억인 동시에 영원한 혼장아닌 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남자 같은 여자’ ‘인정많은 선생님’ 등의 별명이 붙은 거죠. 이와 더불어 격려의 말이 계속되자 저는 무엇인가 더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양 어깨에 힘이 솟더군요.

이 모든 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의 협조로 가족계획 실천율이 20~44세 유배우자 중 정관 25명, 투프 37명, 콘돔 12명 총 74명(68.5%)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을은 경북에서 도범 가족계획 부락으로 선정되어 약진경북 제1차대회 때 처음으로 저에 관한 성공사례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병원환경이라던 간호원이 의료팀으로서 조직적 업무가 한정되지만 보건간호원이라던 누구나 지역사회 내 보건의관계유관기관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입장에 항상 처해 있으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복잡하고 융통성 있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보건간호원들이 이직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걸음으로는 큰 빛이 없으나, 우리들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사명감이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매일 피로에 지친 몸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일하던 1968년에 전국에 걸쳐 가족제 어머니회를 조직 결성하고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 학습반이 범위를 넓혀 어머니회로 변모하는 시기였으나 이 때는 마침 보리베는 철이어서 부녀자들의 모임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조직하여 보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 조직을 알차게 해야 농촌 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의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어머니회를 조직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생활의 경우 특히 농번기에는 야간을 이용하는 '밤모임'이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지요. 하루의 피곤에 지쳐 밤이면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려는 아낙네들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단 모였다 해도 낮에 지쳐 말할 힘도 없이 모든걸 귀찮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던 할머니들은 "이게 무슨 해피한 일들이요, 낮일에 지친 사람들을 잠도 못자게 밤마다 이집 저집을 찾아다니니 무슨 것들이냐"고 하면서 차거운 눈초리로 밀어내는 바람에 대문밖에 멍하니 서서 눈을 삼킨 적이 몇번이 있었는지요. 그러나 저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어머니들을 모아서 밤늦게까지 성생활, 인구증가 문제와 가족제회 폐임요령 등을 이야기하니 모두가 신기한 듯 하였으며 한편 부끄러워 하면서도 흥미진진한 태도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름밤은 깊어가는 데 집에 돌아갈 것을 잊고 마당에 모기불을 피워가며 귀를 모으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알고 그 가정은 물론 이웃에까지 이야기하여 나중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다시 모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을 생각하며 신이 나서 피곤함도 잊은 채 모든 역경도 아랑곳 없이 힘껏 뛰었습니다. 교통이 나빠 밤늦게 돌아올 수 없는 경우 마을에서 신체를 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몸에 이가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룻밤을 마을에서 자고 오게 되는 날에는 어김없이 몸에 이가 들어 온 집안에 소란을 피운 것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어려운 야간활동으로 279개 리.동에 가족제회 어머니회가 비로소 조직 완료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야겠다고 구상했습니다.

전 리, 동을 모두 육성하려니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의있는 회장님 동리에 관심을 기울여 육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산 조직체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으로서 저의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까지 저의 미력을 다한 사례로 여기 경산군 압향면 유곡동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그마한 농촌마을은 사람이 야산으로 둘러 쌓여 마치 병풍으로 가리워 놓은 듯한 50여호 빈촌이었습니다. 어머니 회장은 열성있고 검소한,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남다른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에서 찾아와 "선생님, 우선 마을 부녀자들이 놀고 있으니 부업이 없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 무엇이든지 노력해서 기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까!

그래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업을 탐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구정 전후 부녀자들의 지

간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세배일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합동세배로 어른 찾아보기를 한뒤 그 외 시간에 가내수공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음력 2월까지 걸리는 세배를 시정하려고 동네 활아버지, 할머니, 남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의논을 하려는데 부당하다는 이유로 마을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그 오랜 생활풍습이, 쉽게 시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장수연 담배 몇 봉지와 과자를 준비하여 몇번이나 부탁드렸음니다만 마을 노인들로부터 원성만 들었습니다. 6~7번 끈질기게 찾아가니 그제야 겨우 승락하고 합동세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컷해는 불응한 가정도 있었지만 다음 해 1970년부터는 철저히 시행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적인 노인분들의 사고방식을 빠른 시일안에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노리들이 자주 모여 교육과 지도를 받으면 노인을 잘 모시고 집안살림도 잘 됩니다”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끝에 노인배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부녀자 모임도 할머니들의 이해가 더해져 매우 재미있는 마을로 차츰 변모해 갔습니다. 어느 때는 “선생님, 자주 와서 좋은 말 많이 해주이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한되짜리 향아리를 준비하여 “절미저축”이란 표지를 붙여 아침 저녁으로 한줌씩 모으는 일은 날이 갈수록 회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합동 보리베기, 도내기를 권장하여 협동심과 저축심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었습니다.

몽친다는 신조가 이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남방, 내동, 여천 3동리까지 퍼져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79개 리동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힘겨워 부분적으로 시법부탁 육성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안가족계획협회 남자 간사님이 주재근무를 했지만 남성의 안방출입이란 어림없는 일이라 현황파악을

위한 방문시에는 한 번씩 동행하여 업무파악을 했었습니다. 회장 정탈전이 벌어지는 남자로서는 손을 못 대어 며칠씩 철야근무를 하며 진압시키는 해피망치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겼습니다.

질투는 밋고 싫지만 한편 실력자가 나와서 강한 의욕으로 일해 보겠다는 때는 회원들에게 되도록 좋게 이해시켜 새로 육성해야 했습니다. 그 때 회장교육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일차로 유곡동 회장을 차출했습니다. 교육시간에 사례 발표를 하여 후일 중앙협회에서 유곡동까지 현지답사가 나오고 격려금까지 하사받아 더욱 더 힘차게 뻗어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리에도 전기가 오도록 힘쓸 써주소”라며 어느날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도로가인 남방, 내동에 전기공사중이었지요. 이 기회에 유곡동에도 전기가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민들이 전기가설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못 답답했어요. 주민들은 저의 힘이 큰 줄 알고 있는데 이때 실망시켜 사기가 저하될까봐 몹시 걱정이었습니다. 알아 보겠다고 했으나 막연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군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군수님, 저는 이 경산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군수님 마음에 좌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군수님은 웃는 얼굴로 “박선생이 심각한 얼굴인데 내 힘에 좌우된다면 큰일인데... 어디 한 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했습니다. 저는 진지한 자세로 그 동리에 처음부터 어떻게 손을 대고 현재는 어느 정도며 지금의 숙원사업이 전기가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알았오. 걱정말고 있으면 연락하겠오” 라고 순순히 말씀하셨지요. 3일 후에 군수실에서 연락이 와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군청까지 힘껏 쫓달을 밟았습니다.

군수님은 자상한 얼굴에 웃음 가득히 “박선생, 견적을 빼서 갖고 오시오” 라고 짤막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약간은 힘이 났습니다. 회장에게 연락하여 전기공사 전문가를 찾아갔지요.

남방, 내동에서 유곡까지 전신주가 12개, 내외선 가설공사비가 140~150만원이 필요했습니



다. 그날 밤 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개인부담 2만원, 농협융자 20만원, 마을금고에서 20만원, 합계 14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70년 10월에 180년 동안의 호통불이 삼시간에 그 아쉬운 향수의 불빛만을 우리들 추억속에 남겨둔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기불 점화식으로 온 마을은 축제무드 속에 휩싸여 회장과 저는 얼싸안고 밤아진 동리 북관에서 울며 기뻐했습니다. 주민이 돌돌 묻쳐 한 가족같이 되었지요.

질병없는 마을, 출생신고 계몽, 임신부 영유아 등록, 가족계획 계몽등이 어머니 회장선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결핵관리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객담 수집, 엑스선 촬영 등에 대상자 전원을 참여시킴으로서 병 없는 밝은 마을의 기수가 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밝은 전기불 밑에서 “여가선용”으로 도시로부터 수출품, 아동복 가공을 알선하여 부업이 늘어감에 따라 소득이 늘었으며, 부녀자들은 알뜰하고 예의바른 농촌의 새로운 일꾼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무렵 1971. 4. 22에 대통령 각하가 제창한 새마을 사업의 물결이 전국에 메아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어머니회장들의 마을을 더욱 감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저 가정의배준칙, 절미저축, 여가선용, 보건사업 및 협동정신 등이 모두 앞당겨 시행된 곳이 바로 유곡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직업에 만족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건강복지향상에 힘써 소기의 성과를 얻었을 때 비로소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고, 힘을 합쳤으나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끝없는 사업이라고만 느껴졌습니다.

어느날 출장가던 중 주거지가 없는 미혼녀의 출산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애기를 낳았으나 태반 조각이 남아있어 출혈로 사경을 헤메던 산모였는데 저는 먼저 그녀를 병원에 옮겼습니다. 너무 많은 하혈로 수혈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피가 없어 마침 O형인 저의 피를 수혈했던 일, 또 나병환자 가족이 동리 주민들에게 버림받아 겨우 외딴 움막에 의지해 가며 죽을날만을 기다리듯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치료와 간호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 미약하나마 생계유지를 다하도록 도움을 주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달라졌던 일이며, 끼니조차 어려운 어느 집에 임신중독증인 임신부가 분만 후 자간과 출혈, 태반 탈출이 되지 않아 산모를 주민들의 리어카에 싣고 급하게 보건소에 왔을 때 지체없이 시립병원에 의뢰했던 고충, 제 식구가 입원하여 치료받듯, 이 걱정 저 걱정을 안고 관계기관에 사정해야 했으며, 산모를 계속 돌보아야 했지요. 그 뿐입니까? 갓난 아기는요? 산모가 산후 합병증으로 거의 한달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신생아와 집에 있는 5남매를 돌봐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힘겨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의와 성의를 다했지만 저의 미약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야간의 지도계몽은 특히 농번기일 때에는 밤늦게 귀가를 하거나 공무출장으로 외박할 경우에 저의 남편의 노여움은 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남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자기 부인이 아무리 공무로 외박한다 해도 무관심할 분은 없을겁니다.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의 임무를 설명했으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끝내는 “넌”자 소리에 따귀까지 얻어맞는 슬픔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 마다. 저는 사기가 꺾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가정의 아내로 되돌아 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 —오직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일했고 저를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지역사회 농촌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오늘 이 자리  
에 제가 서게  
된 것도 저  
가 인이 잘 나서도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보람될 것이고 몇몇한 것이기에 언젠가는 그이가 반드시 저의 사업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날이 오리라 믿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이의 노여움은 쉽게 풀이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밤까지 일을 하느냐? 아무리 해도 하대를 받는 임시적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며, 밤까지 일한다고 특근수당이 있느냐, 과잉충성은 하지 팔다”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리 늦어도 트럭이나 다른 차편을 이용하여 늦게라도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만, 그 때도 그이는 탁무가내였어요. “어느 날인지 모르나 염치는 있군. 밤늦게라도 보내주니 말이야, 그 놈이 가라더냐?” 물론 그이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줄 알면서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제 심정은 무엇으로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직장에 충실하려니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게 되는 간호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퇴양난에 처했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직업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저를 주저앉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고 다른 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일했고 저를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지역사회 농촌주민과 호흡을 함께하려고 노력했으며, 직책은 가족계획 지도원이나 다목적 보건봉사자로서 힘을 다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물론 지난 날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는 농촌의 선량하고 어진 지역주민이 있는 한 앞으로 계속 굳건히 의료인의 대열에 성실히 참여하여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혀 보다 나은 자기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계속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이를 굳건히 극복하고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내 이웃 등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남은 여생동안 저의 모든 정열을 쏟아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루한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중]



#### <20페이지에서>

마지막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제 이야기로 인하여 여러분 가슴 하나하나마다 예쁘고 작은 불 하나씩 켜게 되었으면 합니다. 출고 아픈 아이들 어둡고 외로운 산속에서, 설 한가운데서 따스

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들보는 이 없어 쓸쓸한 그 아이들을 위해 망설임없이 그 손길이 되어 줄 마음의 예쁜 불을 켜는 것 말입니다. [중]